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23-94
----------	-------

발의년월일 : 2023. 6. 26.

발의자 :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대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나.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중립으로,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다. 마포구의회는 구청장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율적 시책 추진을 촉구 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검토와 범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함

### 3. 이송처

○ 국회, 마포구청, 전국 지방의회

### 4. 붙임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

오늘날 탄소중립 배경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들이 세계 각지뿐만 아니라 국내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은 54일간 역대 긴 장마가 지속되고,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초강력 태풍의 잦은 발생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의 일이 되었다.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세대를 위협해 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정부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마포구의회도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포구청장은 조례 명시된 구의 책무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홍보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하여 힘을 모아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규정된 기본원칙과 책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는 주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책수립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 한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늘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운동이 되도록 노력한다.

2023.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